

낙지먹고 갯벌체험, 도자기 빚고 일몰 감상까지...

무안 해안선 관광 볼거리·먹거리 가득

서해바다를 낀 무안지역 해안선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무안군은 천혜의 갯벌에서 생산되는 세발낙지와 장어를 비롯해 고구마·양파 등 농·수산물과 초의선사 탄생지·오송우미술관 등 관광자원이 즐비하다. 무안지역에 산재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소개한다.

◇‘검은 비단’ 갯벌·낙지=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에 위치한 무안 생태갯벌센터는 갯벌의 무한한 가치를 소개하는 체험학습장으로, 갯벌

에 대한 지식도 쌓고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습지보호구역(제1호),람사르 습지(제1742호), 전남도 갯벌 도립공원(제1호)로 지정돼 있다. 주말 나들이객들의 삶과 휴식처로 주변에 조성된 갯벌생태공원에서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무안군 해제면 송계 체험마을은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바다낙지와 계절별로

다양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무안 낙지작업장은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30여개의 식당이 들어서 있다. 세발낙지는 발이 가늘다는 뜻이다. 무안낙지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무안의 갯벌에서 잡은 것으로, 타 지역의 낙지보다 맛이 월등히 뛰어나다.

무안 망운면 피서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절낙지’는 낙지를 맑은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은 뒤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오면 이것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 이때 낙지가 꼬를거리기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로 기절낙지란 이름이 붙여졌다.

◇무안 분청사기와 예술기행=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 자리한 무안군 오송우미술관은 서양화단의 원로로 대한민국 예술원회원의 오송우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으로, 오송우 화백의 기증작 179점을 보유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십장생도 26점, 제2전시실에는 동양의원형 13점,



무안생태갯벌센터



고구마 수확

제3전시실에는 한국의 100산 16점이 전시돼 있다.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는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중흥시킨 다성(茶聖)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는 초의대선사의 탄생지이다

군은 초의선사가 지난 1997년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탄생지 현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다인들의 순례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계면 ‘월선리 예술인촌’은 한국화에서 서양화, 도예, 조각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 살면서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무안의 ‘와이키키 해변’으로 불리는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 해변은 4km가 넘는 긴 백사장에 울창한 송림까지 겸비한 천혜의 해수욕장이다. 이 밖에도 몽탄면 사천리와 몽강

리에 위치한 분청사기 도요지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도자기에 큰 영향을 끼친 무안분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도자기 빚기 체험과 더불어 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영산강변에 위치한 몽탄면 명산리 ‘장어구이’와 사창리 ‘돼지 꼬불구이’도 미식가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하나의 뿌리에 핀 1538송이 ‘천간작’

‘2012 대한민국 국경대전’에서 선보인 1538송이의 천간작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천간작은 하나의 뿌리에서 500송이 이상의 꽃을 배열하는 작품이다. 함평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삼목해 2년간 재배해 왔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kwangju.co.kr

특별열차 타고 땅끝해남 관광하세요

해남군, 단풍체험·고구마캐기 등 인기

해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땅끝해남 탐방 특별관광열차’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부터 목포역과 MOU를 체결,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로 관광열차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단풍체험과 고구마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열차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충북 제천역에서 420명의 관광객이 나주역을 통

해 해남에 도착, 땅끝마을과 대흥사의 가을 정취를 만났다.

이어 6일에는 관광객 576명이 용산역에서 목포역을 통해 명랑대첩 승전지가 있는 우수영 관광지와 가을 단풍의 절정 두륜산을 관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17일에는 432명이 야간열차로 목포역을 통해 해남에 도착, 땅끝마을 해맞이와 두륜산 가을단풍 구경에 이어서 해남의 명물 고구마캐기 체험까지 잇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게 된다.

이에 군은 많은 여행객들이 해남을 추억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책자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전담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군은 버스 임차료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특산물 판매장 등도 설치해 양 기관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광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체험할 수 있고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KTX연계상품개발 등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가을향 가득 분재공원서 ‘신안빨낙지 축제’

3~4일 활어잡기·낙지 비빔밥 만들기 등 행사 다채

‘제5회 신안빨낙지 축제’가 3~4일 이틀간 신안군 압해면 분재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활어잡기 체험을 비롯해 낙지 비빔밥 만들기, 낙지 가요제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낙지 축제가 열린 장소는 바다와 섬, 분재공원, 송공산(해발 230m)이 자리잡고 있어 가족과 함

께 가을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공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바다에 접점이 떠있는 섬 풍경과 지주식 김 양식장을 볼 수 있다.

분재공원에는 우리나라 분재의 거목 최병철 박사가 한평생 가꾼 명품 분재가 전시돼 있다. 축제 기

간 중에 가을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국화작품이 전시되어 추억이 남는 가을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안 낙지는 질 좋은 갯벌에서 생산돼 맛이 연하면서 담백하고 입안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200여원의 낙지판매 수익을 올리는 등 전국 각지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완도군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선정

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군 집행부와 노조위원장(김병일)을 비롯한 노조임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등 총 10개 기관이 공무원 우수행정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군은 상호 신뢰속에서 노사관계를 견고히 구축해 서로를 존중하며 직원

간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가꿔 온 행정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이를 타행정기관에 확산·전파해 공직사회 전반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ejchung@

영광군 ‘재난대응 안전 종합평가’ 우수

영광군이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0개분야별 평가항목을 중앙 및 전문평가단이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광군은 13개 유관기관 2000여명이 참여한 원전실제훈련과 민방위훈련, 지진에 따른 위기대응 통합도상훈련,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민·

관·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 협력체제를 구축,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전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된 ‘위기대응 통합 도상훈련’은 역할과 임무에 대한 조차계획 및 문제점, 협력방안을 작성, 토의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토의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선제적 방재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수가발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